140607_와스디, 에스더, 세레스, 미쁘신 하나님

광주교회 신창훈Pa

본문 말씀

에 1:9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에 1:10 제 칠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에 1:11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에 1:12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왕명을 좇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듯하더라

.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마음과 태도를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와스디, 에스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1. 와스디

1장은 와스디의 폐위, 2장 폐위에 따른 에스더의 즉위. 와스디의 폐위에 대해서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왕후였는데 왕이 술자리에 불렀는데 나아가지 않아서 폐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것이 있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초정한 이유.. 그 이유가 앞에서 보이게하려고 부른거잖아요? 그런데 와스디가 거절한거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와스디가 잘 못한 일인가 왕이 잘못한 것인가. 아하수에로는 정당한가 부정한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매님들은 잘한일 같은가요? 잘못한건가요? 그렇다고 아하수에로가 잘한 것도 아니죠. 잘못한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냐! (웃음). 갑자기 나와서 미모를 과시하라고 하면 못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희 자매도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웃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와스디가 잘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하수에로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고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술자리에서 여흥이 돋아가지고 부른 것은 분명 왕이 잘 못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할수도 있겠죠. 그것도 취객들 앞에서.. 그러나 명백히 왕후가 잘못한 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잔치의 목적, 그리고 자신의 위치, 왕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한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봤어야 했습니다.

지금 왕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만에 모든 장수와 귀족을 불러놓고 180일동안 잔치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들을 정리하고(이집트 잔존세력, 바벨론 잔존세력 평정 한 후) 이제, 부귀, 권력이 자리를 잡고 난 다음 행한 잔치라고 나옵니다. 한가지 더, 그 아버지(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어 소원이 그리스 전체를 복속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패전하고(마라톤 전쟁) 전쟁 후 4년만에 화병, 휴유증으로 죽습니다. 그 아들로서 평생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 300의 배경도 그런 배경입니다. 즉, 아하수에로왕은 대사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패하면 정말 큰 타격입니다. 그걸 떠나서 전쟁은 목숨이 오가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이 안되면 화친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의 목숨, 왕의 목숨, 국가의 운명을 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페르시아 전체의 결집을 위해 벌이는 잔치입니다. 그저 자랑이라기 보다는 곧 있을 그리스와의 결전을 독려하고 전의를 북돋우며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그런 전쟁입니다. 남편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아내로서 그렇게 해야합니다.

군사적으로는 페르시아, 그리스 비교가 안됩니다. 부귀와 군사력은 그리스를 몇 번이고 집어 삼키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만일 군사력이 강대해도 마음이 결집 안됐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180일동안 귀족을 번갈아가며 불렀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회식을 180일 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고욕이죠. 만일 우리가 180일동안 아이들을 심방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들을 다 마치고 7일동안 인민을 위해 또다시 잔치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큰 행사를 하면 통제도 하지 않습니까? 큰 행사를 위해 백성들은 180일 동안 삶이 고생이 많았겠죠. 인민을 위해 7일동안 위로하는 거죠. 이게 끝나고 끝무렵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긴장이 풀어졌겠죠. 마음이 모여있고 위로를 얻었고.. 함께 꾸몄던 귀족들과 내시들도 안도하는 그 때죠. 그러한 때에 왕의 마음이 다소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왔을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왕 앞에서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방백과 사람들 신하들 앞에서 내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내가 가야하느냐.. 감히 나를 누구로 알고.. 자신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러면 안되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해야할 일은 남편의 뜻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난처해져버렸습니다. 180일동안 모든 마음 모으는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왕비가 안나오는 겁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비도 말을 안 듣는데. 우리가 싸워야 하느냐. 왕은 왕비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전국을 다스리느냐.. 180일동안 모은 마음이 한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깐 왕의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 집안이 왕집안이기 때문에 더 큰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 1:17 아하수에로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러면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폐위가 됩니다. 대단히 규모있는 잔치였고 왕도 그러했습

니다.(에 1:7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에 1:8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박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들의 조언을 듣고 모든 일을 결정했거든요. 즉석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집하고 의견을 듣고 절차를 걸쳐 폐위를 하게 한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모형이 됩니다. 결국, 왕후 와스디는 자존심, 이기심에 휩싸여 중요한 것을 놓치고 쫓겨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가 '사라'입니다.

남편이 팔았습니다. 빼앗기는 것도 아니죠. (아내를) 그냥 넘겨주고 자기는 재물 받고... 그것을 두 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거룩한 부녀의 이름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와스디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는 사울의 아내 '미갈'입니다.

삼하 6: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춤을 추느라고 옷이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미갈의 눈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왕이면 격식을 갖춰야지 어떻게 아내 앞에서도 아니고 시녀앞에서 그러느냐. 춤을 추느냐.. 그 배경은 전혀 관심이 없는거죠. 다윗이 무슨일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거예요. 언약궤를 드리고 성전을 세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과 다윗을 통해 이뤄주신다는 기쁨..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죠. 사울에게 배운 것은 자기 위치.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이 다윗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겁니다.

모르드개는 예수님, 하만은 마귀, 유대인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아하수에로 하나님. 와스디 우리 개개인.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치 못한 모습이죠. 만일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시는 일에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 배척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폐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소금이 녹는 것입니다. 자기가 녹는 것. 희생이 없으면 버려지는 용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벧전 4: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인이 있다. 나는 종이고 종은 자기가 없는 거고 자기의 소유가 없는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자기의 뜻이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와스디는 조그만한 희생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뺏겨버린겁니다. 결국은 쫓겨났고 어리석은 여인으로서 우리 입에 오르내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죽으라는 요구도 있겠지만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조그마한 수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절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로 조그마한 수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없어 폐위되는 것... 자신을 위해 죽어주시고 조그마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잠간의 귀찮음을 견디기 싫어서, 혹은 내 자신이 쑥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일겁니다.

저도 교회학교 와서 예쁜손, 허리. 육군병장 제대한 내가 그것을 한다고? (웃음) 우리는 그것들부터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위치를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해야하는가. 잔밥처리, 설거지 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것 해야하는가.. 그러나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것 순종하는 것. 큰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옷 벗고 공개처형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이것을 안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와스디는 잠간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잠간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사기를 돋는 일보다 귀중하죠.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의 안일, 현재 주어진 위치만 누리려는 마음은 없어야 겠다..

2. 에스더

에 4: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에 4: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 4:15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에 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 4:17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여기 정반대되는 또 다른 신부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 참된 star가 에스더, 구원받은 우리죠. 지금 자기 민족에 큰 화가 될 상황이 앞에 있습니다. 엄두를 못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사형입니다. 부르지 않은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에스더를 일깨운 것은 모르드개의 설교입니다. 양심, 하나님의 섭리, 신앙, 에스더에 대한 독려까지 포함된 설교입니다.

13절.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죠.

실제로 홀로 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굳이 나설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이 죽더라도 어짜피 에스더는 고아거든요. 모르드개가 있긴하지만.. 평생 입뻥끗안해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가만 있으면 왕으로 평생살고 나서면 죽을 수 있는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한 판단이냐.. 너라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겠죠. 이 이기심을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교한 것에도 그게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참수당할 위기에 처

해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주춤할 수 있는거죠. 이건 종교인으로서 핍박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갇혀있는 것은 일반 죄인처럼 감옥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나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같은 세월호 시국에. 구원파 논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지금이야 참수를 시키겠어요.. 카타콤에 들어가라고 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때 한 말은 혼자 핍박을 피해보려고 주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춤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안일을 위해 나아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혼자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짓밟히고 있는데 우리는 웃고 있을 수 없잖아요.

14절에. 모르드개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역본을 보면 '다른대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로 쓸 뻔했다. 왜냐하면 환란과 회복은 성경에 예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에서 안 간 사람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정신차려라! 하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받아드릴 수 있는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러나 에스더 너희 집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참여하냐 안하냐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심판은 결국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전쟁에 이기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을 이뤄집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상급으로 보답해주실거예요. 반대로 게을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미쁘신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저주가 있을게 분명하다는 거죠.

또 모르드개는 너(에스더) 자신의 위치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내가) 부자라면 왜? 지식이 있다면 왜? 사회적 위치는 왜. 돈이 있다면 왜.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일 때 부자라는 이유로 왕을 공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시간과 돈을 갖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도 그랬습니다. 왜 하필 에스더가 지금 왕비이냐.. 혹시가 아니고 왕비인 이유가 이때입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 때 복음전하라고 구원하신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대학에 갔습니다. 왜요? 이방인의 목적과 같습니까? 결혼은요? 알콩달콩.? 이방인도 그렇게 한잖아요. 이때를 위합입니다. 목적이 다른거죠.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분연히 일어날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마도 에스더는 3일간 두려움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을 했을겁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는데. 유대인이 살아 남아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살아야 하고 내가 쓰임받아야 한다. 나갈 때 잔치를 준비해놓고 나갔습니다. 만약 죽으러 나갔다면 살 수 있을 때 잔치를 준비했겠죠.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이스라엘의 보존으로 끝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운데 주셨을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바람과 일치했을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고무되겠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해도 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유익이 없죠. 그런데 내가 기도한대로 된다면. 그러면 체험과 신앙의 재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서 내가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안다는 거죠. 분명한 행동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첫날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30일 안찾았으면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무 심히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왕의 마음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와서 역대 일기를 가지다가 읽었다가.. 모르드개를 알게 됐습니다. 하루 유예가 엄청난 섭리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런 것을 알지 않았을까.. timing이 너무나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모든 timing을 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이 에스더의 결심이 결국 별처럼 빛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할 징계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확신도 얻고 모르드개는 관직도 얻었죠.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결심은 이자가 대단한 것이죠.

3. 세레스

에 5: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에 5:11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에 5:12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에 5: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에 5:14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아내는 하만의 아내입니다. 왕 다음 높은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아내라면 이렇게 작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되겠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겠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한 질투, 시기,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귀영화, 왕이 자기를 사랑한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드러내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이것은 하만이 하는 것이예요. 그 은혜를 준 왕에 대한 감사, 127도를 다스리는 넓은 마음, 지혜를 구하고 아내와 의논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아내입니다. 받아주고 품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세레스는 50규빗 나무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22.5m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8층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목을 메달아 두라고.. 페르시아는 평야거든요. 8층 높이면 제일 높은 것

입니다. 이런 잔인성을 충동질 하는게 아내 세레스입니다. 누군가가 일하다가 자기를 드러낸다는지... 이러면 안되겠죠. 우리도 장대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결국 이 장대에 자기가 메달렸죠. 그 집안이 진멸이 됐죠. 모르드개에게 집을 넘겨줬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딤후 2:8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딤후 2:9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딤후 2:10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딤후 2:11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딤후 2: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딤후 2: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배경은 네로의 핍박기에 참수되기 전에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핍박기에 위축된 마음이 있었더 것 같아요. 충성된 교사, 좋은 군사,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수고하고 인내하는 농부가 돼라.입니다. 그 희생적인 삶의 이유를 드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 8절. 주님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복음.. 인자이신 예수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먼저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 너는 일신의 평안을 추구하는데 평안은 죽고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후에 평안하셨는데 너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고난이 크지만 영광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두 번째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죄수가 된 것 같지만 말씀은 메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한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을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통로라면 내가 죽어도 그 말씀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 복음을 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는 것은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충성된 교사, 좋은 군사,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수고하고 인내하는 농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1절에. 에스더의 말처럼..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죽어도 살고, 고통 받아도 주님 오실 때 왕노릇하니깐.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경고가 있습니다. 영광도 믿을 수 있는 반면 주를 부인한 자에게 우리도 부인당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주는 미쁘시기 때문이다. 주는 거짓말을 못하신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눅19의 책망.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 놓이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터만 남았어요. 그것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 상태를 원한다면 그 상태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네가지를 깊이 생각하라.

1. 주님
2.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
3. 영원한 영광
4. 상급과 보응.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양회, 일상의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